

서남권 해양관광·화원관광단지 성공전략 심포지엄

“지지부진 J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을”

화원관광단지 편입 1단계 1,154만평 우선 시행해야

해남·영암에서 추진되고 있는 3천만평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를 즉시 개발착수가 가능한 면적부터 단계별로 추진해야 효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진하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전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규모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로 화원관광단지 154만평과 진경련과 전남개발공사 컨소시엄이 지정받은 1천만평을 포함한 1천154만평에 대한 우선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지난 1996년부터 정부와 전남도가 발표한 지역개발계획은 모두 11개에 이르지만 서로 중복되고 개발권에 대한 구분마저 다르다는 등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남 화원관광단지를 편입시켜 단계별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2008년 부분 개장 예정인 화원관광단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현장과 시각

“일은 언제 하나요?”



박치경 정치부 차장

지난 19일 전남도는 또 한차례의 ‘인사홍역’을 치렀다. 연초부터 실왕실래하던 실·국장급 인사가 20일만에야 단행된 것이다.

전남도청의 1월은 서기관급 후속인사와 인계인수, 업무보고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군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서 1월 정기 인사가 마무리되면 설 연휴가 이어져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J프로젝트 키 쥘 사람없다

전남도 정부부지사 공백 장기화...사업 차질 우려

전남도 정부부지사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정 차질 우려가 일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15일 이근경 전 정부부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임자로 경제전문가를 물색해 왔으나 21일까지 2개월이 지나도록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인(SPC)을 올해 상반기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껏 후임자를 고르지 못해 사업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지사가 추천을 부탁했으나 좋은 후보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는 최근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J프로젝트 등 전남도의 역점시책 사업을 끌어갈 역량을 갖춘 정부부지사의 천거를 당부했으나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전남도 신임 국장급 프로필. Table listing various officials including 의회사무처장 고영길, 행정혁신국장 김재곤, 서남권발전지원단장 박래영, 경제과학국장 양복완, 관광문화국장 주동식, 해양수산환경국장 김갑삼, and 관광투자유치보좌관 정인화.

35년 전통의 최고급 민박집이 연구 개발한 장생·무늬 오가미 식품. Advertisement for a traditional Korean restaurant.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Advertisement for a night electricity boiler with a special supply price of 398,000 won.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Advertisement for a Simmons mattress store in Gwangju, featuring various mattress models and prices.